

第3國에의 共同進出(플랜트, 資源開發) 方案」,  
인도네시아LNG 案件 等

미쓰비시商事(株) 藤山 知彦 常務執行役員



#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 방안」

2012년 3월 22일

미쓰비시상사(주)

집행임원 후지야마 도모히코

머릿말 (2011년 2월 25일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발표)

## 한일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

### 1 . 제3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협력

제3국에서의 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일양국이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국이 세계의 인프라 안건을 수주. 인프라 수출을 위해서는 민관(民官) 연대가 필요하며 민간기업간의 협력 외에도 양국정부의 지원이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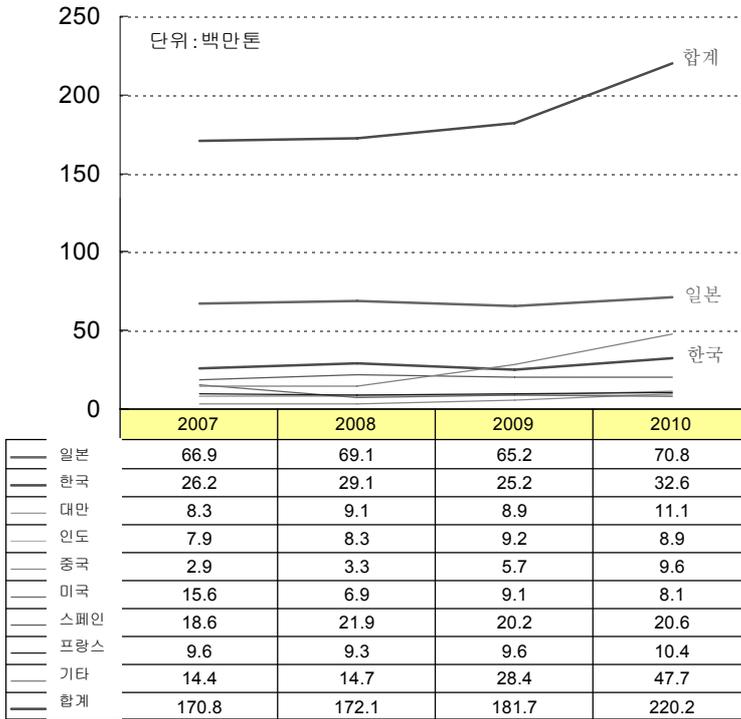
### 2 . 한일양국의 수요를 합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확보

한일양국도 자원수요의 증가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수요를 합쳐서 하나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자원확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더욱 강화하고 권익확보·공동개발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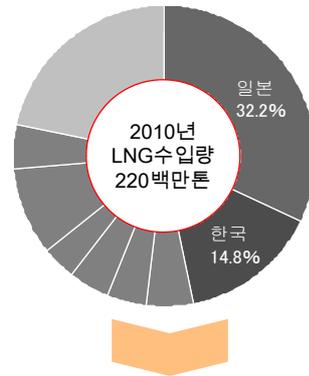
### 3 . R&D 협력

한일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 발 국제스탠더드 상품을 제조.

# LNG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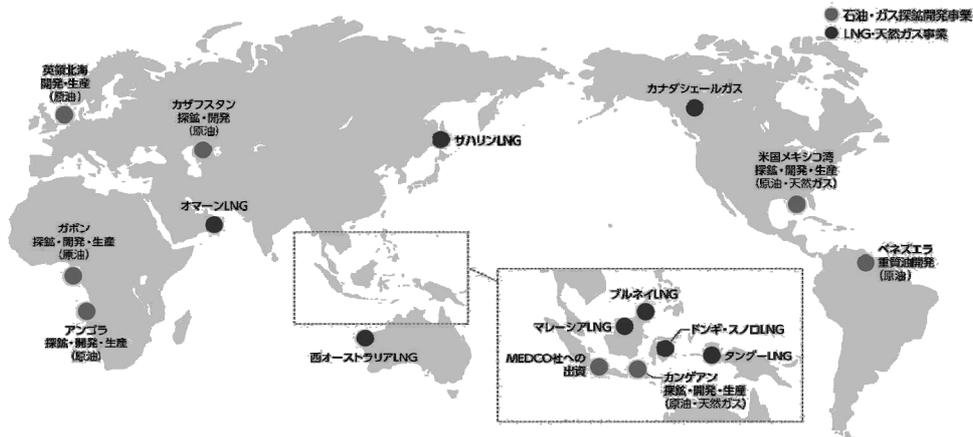


(자료: GIIGNL)



- 한일은 세계제1·2위의 LNG 수입국. 양국의 수입 세어는 약 50%에 달함.
- LNG수요의 보다 증가가 예상
  - 「감(減)원전」, 「탈원전」 흐름
  - 청정에너지원
  - 신흥국의 LNG 도입 증가
    - ⇒ 2015년 3억톤
    - ⇒ 2020년 4억톤

# 미쓰비시상사의 주요 석유·가스 프로젝트



스노로·토이리광구 개발 (인도네시아)



NWS프로젝트 (호주)



사할린II 프로젝트 (러시아)

